

Data Protection Alert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 역대급 과징금 리스크 대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매출액 10% 과징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3%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제재로, 개인정보 사고는 더 이상 보안팀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 책임이 직접 연결되는 전사적 법률 리스크가 됐습니다. 반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규모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은 물론 손해배상과 형사책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관리 체계로 평가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및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INSIGHTS

언론 속 대륜

뉴스1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3,300만 명의 정보유출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의장 등 쿠팡 핵심 인사들이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륜 장지운 변호사는 외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강제 수사의 한계를 짚으며, 여론의 압박 속에 김 의장 본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용단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괘씸죄'를 묻는 강력한 후속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5개월간 유출을 방치한 쿠팡 사태에 본 법인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현지 집단소송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륜의 손계준 변호사는 SKT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일한 셈법을 끊기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피해 국민을 대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CONTACT

조영곤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2014

조상수 경영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정찬우 경영총괄변호사 T. 070-5221-2387

박동일 경영총괄변호사 T. 070-5221-3616

최이선 경영총괄변호사 T. 070-7510-1044

손계준 총괄변호사 T. 070-5117-3709

법무법인(유한) 대륜 S.J.K.P LAW FIRM LLP.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